

엔터테인먼트

Entertainment

'막돼먹은 영애씨'

tvN, 시즌 8 론칭

tvN은 오는 17일 자정 다큐 드라마 '막돼먹은 영애씨' 시즌 8을 론칭한다.

이번 시즌에서는 평생 솔로로 살 줄 알았던 주인공 이영애(김현숙 분)의 결혼 준비 이야기가 그려진다. 프리포즈를 받은 이영애는 혼수 준비는 물론, 피부 관리와 스타일링에 몰입한다.

또 평소 '이혼하자'를 입에 달고 살았던 영애 부모의 황혼 부부 이야기가 그려진다.

국내 시즌제 드라마를 선도하는 '막돼먹은 영애씨'는 흔들리는 6mm 카메라 앵글과 상황별 명 자막, 내레이션 등으로 정통 드라마에서 탈피, 실제생활을 보다 가까이 조명해 '다큐 드라마'라 불린다.



“집 일으키는 가장役 짝사랑 전문배우 꼬리표 뺏어요”

‘괜찮아 아빠딸’ 문채원

“이번에는 짝사랑 아니에요. 남자들이 잘 사랑할 거예요.(웃음)”
‘짝사랑 전문배우’라는 별명이 붙었던 문채원(24)이 SBS TV 월화극 ‘괜찮아, 아빠딸’을 통해 데뷔 3년 만에 처음으로 주인공을 따낸 데 이어 ‘짝사랑’ 꼬리표도 떼어낸다.

“첫 주인공인 데다, 짝사랑도 안 하게 돼 너무 좋아요. 이번에는 아빠만 사랑해요. 문채원의 다른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2007년 청소년 드라마 ‘달라라 고동어’로 데뷔한 문채원은 2008년 ‘바람의 화원’의 기생 정향으로 얼굴을 알렸다.

남장 여자 신윤복(문근영 분)을 향한 정향의 애절한 짝사랑은 청초했고 기막혔고 슬펐다.
2009년 ‘찬란한 유산’의 유승미로는 이를 알렸다. 선우환(이승기)을 향한 승미의 짝사랑은 거짓말에 거짓말을 낳으며 시청자를 분노하게 만들었지만, 결국에는 슬픔으로 귀결됐다.

곧이어 출연한 ‘아가씨를 부탁해’의 여주로는 변신을 시도했다. 앞선 작품들과 달리 밝고 명랑한 캐릭터였다. 하지만 그때도 짝사랑은 여전했다. 여의주는 서동찬(윤상현)을 하염

통해 제가 얼마만큼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은채원은 성장을 보여줘야 하는 인물이다. 지금까지는 조언으로서 한가지 모습에만 충실하면 됐던 그는 은채령을 통해 명품에 사족을 못 쓰고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의존하던 철부

“채령과 함께 성장할 내모습 기대돼”

지 막내딸에서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자립하는 인물로 변화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주로 사연 있고, 여성스럽고, 조숙한 캐릭터를 연기했다면 이번 드라마에서는 제 나이에 딱 맞는 발랄하고 통통 튀는 모습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아가씨같은 모습에서부터 철이 든 성숙한 모습까지 차례로 보여 드릴 수 있으니 좋은 기회죠.”

1년여의 휴식 후에 출연하는 작품이라 각오와 열의도 남다르다. ‘아가씨를 부탁해’가 지난해 10월 막을 내린 후 그는 본의 아니게 쉬었다.

“처음에는 진짜로 숨 돌릴 시간이 필요했지만 서너 달 정도 지나고 나니 너무 일이 하고 싶은 거예요. 1년 만에 다시 작품을 하니 일에 대한 감사함도 알게 되고 피곤해도 피곤하다는 말을 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의욕이 넘쳐 있어요.”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하다 데뷔한 그는 “연기를 하면 할수록 진짜 배우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바람의 화원’은 제게 운명처럼 다가와 한 쪽의 그림처럼 남은 작품이고 ‘찬란한 유산’은 아직도 함께 출연했던 배우들과 수시로 만날 정도로 너무나 좋은 작품이었어요. ‘아가씨를 부탁해’는 아쉬움도 많았지만 그래도 제 밝은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는 제 대표작을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프로가 되고 싶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역할 통해 잠재능력 보여줄 것”

없이 바라만 봐야 했다.
지난 22일 첫선을 보인 ‘괜찮아, 아빠딸’은 어느 날 아빠가 사고를 당하면서 집안이 몰락하자 철부지였던 딸이 비로소 아빠의 희생과 노력을 깨닫고 곳곳에 역경을 헤쳐나가는 이야기다.

“제목에서부터 딱 끝렸어요. 가슴이 뭉클해졌죠. 또 은채령이라는 인물을 통해 제가 많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트렌디 드라마도 하고 싶지만, 한 번쯤은 이런 역할을

‘아테나’ 차승원



“추성훈과 일대일 혈투 40대 되니 몸 사려지네요”

“지금 6·7부 찍고있는데 회를 거듭할수록 악역이 드러나요. 다른 데서는 볼 수 없었던, 다른 맛을 줄 수 있는 캐릭터를 만들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차승원이 13일 첫선을 보이는 SBS TV 20부작 대작 ‘아테나 : 전쟁의 여신’을 통해 색다른 매력의 악역에 도전한다. 그는 극중 미국 국토안보부 동아시아 지부장이자 테러조직 아테나의 수장 손혁 역을 맡아 이중 플레이를 한다.

차승원은 “비슷한 성격의 배우가 하나도 없어서 서로 잘 어울려 촬영장이 아주 재미있게 돌아가고 있다”며 “특히 김민중 씨가 안주인으로서 촬영현장마다 먹거리를 챙겨줘서 촬영이 즐겁다”며 웃었다.

“해의 촬영분만을 먼저 몰아서 찍고 왔기 때문에 사실 찍을 때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나올지 머리 속에 잡히지 않았어요. 또 장르 자체가 배우들이 쉽게 할 수 없는 장르인 데다, 캐릭터도 땅에 안착된 게 아니라 연기하기가 힘들었어요. 특히나 제가 맡은 손혁이라는 인물은 더 현실감이 없죠. 그런데 찍어온 영상을 보니 멋지고 볼거리로는 충분한 것 같아요.”

그는 하와이에서는 이 드라마에 특별출연한 이종격투기 선수 추성훈과 일대일 대결을 펼치기도 했다.

“사실 전 그냥 테러조직 수장으로서 총만 쓰고 진두지휘만 할 줄 알았는데 어휴, 추성훈 씨와 결려서 정신이 없었어요.(웃음) 26시간을 내리 촬영하는데 진이 다 빠졌죠. 그분은 파이터니까 힘이 넘치는데, 우리는 힘들잖아요. 물론 저도 30대 초반에는 몸을 사리지 않았어요. 17m 높이에서도 뛰어내렸는데 40대가 되니 7m 높이에서도 못 뛰어내리겠네요. 하하.”

차승원은 극중 수애와 이지가 두 여배우와 멜로 라인을 형성하는 ‘행운’을 누린다. 이지가와는 진한 베드신도 촬영했다.

“영광이죠. 손혁이 극중 두 여배우를 상대하는 방법이 다른 점도 재미있습니다. 두 여배우 모두 액션을 잘 못하게 생겼는데 액션을 너무 잘해요. 밥도 너무 잘 먹어서 놀랐습니다.(웃음)”

그는 또 범국가 위기 방지 특수기관 NTS 국장인 유동근과 불꽃 튀는 파워 게임을 펼친다.

“유동근 선배님과 아직까지는 두 신 정도 부딪혔는데 명불허전이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른 배우들은 저보다 후배인데, 유동근 선배님처럼 관록있는 선배님과 호흡을 맞추니 연기적으로 욕심이 마구 나오는 게 아주 기분 좋습니다.”

/연합뉴스



어린 꿈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할짝!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초록우산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당신의 실천과 관심만이
소중한 아이들의 행복을 지킬 수 있습니다.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

【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은 100여 년 동안 확대피해 아동을 돌보아 왔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아이들이 웃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어린이와 함께 하는 꿈
초록우산
아동학대 신고전화
후원문의 **1577-1391**
(062)351-3513